

나무가



[해제]

<나부가(懶婦歌)>는 당시 부인들의 나태함의 형상화를 통하여 부녀자들에게 교훈을 전달하는 계여가(誡女歌)의 하나이다. 이본으로는 규장각(奎章閣)에 소장된 <나부가>와 장서각(藏書閣)에 소장된 <나부가>와 이정환(李靜煥)이 소장한 <나부가>가 있다고 한다. 주제는 나태한 행실을 경계하여 꼭 현모양처가 되라는 것과, 양가의 며느리로 망신당하는 사례를 들며 여자는 외부와 접촉을 끊고 집안에만 있으며 가사나 부지런히 돌보면서 어른에 복종해야 집안이 성한다는 경계를 노래하고 있다. 본 가사는 두루마리에 세로로 필사되어 있으며, 한 줄에는 14~17자의 한글로 기록되어, 총 98행 1,511자로 되어 있다. 아녀자의 나태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문투는 한글투를 바탕으로 한문투를 적절하게 섞었다. 작자는 알 수 없으나, 화자가 여자이며 내방가사의 형식을 갖추었다. 내용은 “어와 분여드라 니니말씀 드러보소”라고 시작하여 부녀들에게 부녀자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전제한다. 이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부녀자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 침선방적은 아이를 핑계하고, 방적은 곡식으로 바꾸며, 어른들에게 상을 올릴 땐 예의가 없으며, 시가 흥을 보는 등 행위에 대해 “낯철덥고 도라서며 어와 저런턱은 방망이로 웅적이 처춧하면 조흘시고”라고 하여 방망이로 응덩이를 처치해야 마땅하다고 한다.

[원문]

나부가

어와 분여드라 니니말씀 드러보소
 분여의 밧쓴황실 어느일이 편할손가
 스구도 니일이요 봉제스도 니일허리
 빈직도 니일이요 어비복도 니일이라
 ◆◆당적 니일이요 엄식죽계 니일이라
 ◆지기쥬 분여들은 할일을 못허거던
 ◆기지늑 마지어다 아모철도 모라면서
 걱정소리 시그럽다
 쥬야의 훈조드러 군동제만 허단말가
 가로독 씨러니야 전역으로 맛초니고
 쓸단지 쏘다니여 윈조지미 맛초니면
 아히야 시그럽다 너아바이 드라실늑
 조미들의 이빅듬외 계이특의 더먹조니
 저밥이라 누름기의 물직기 처와니니
 물빅로다 맛보노라 면저먹고 디공모와
 니쥬먹고 고리솔거 마이먹고 먹으면 솟되있다
 입치리만 쥬순허고 침선방적 안이허되
 익이선다 유세허고 초열다을 니누언니
 아리운다 핑기허고 어둡존의 누어조니
 지닌히 존난가락 오리고 신흔러니
 어저밤의 축인솟가리 석어난다

담비되만 비시리고 춘하무량 지니다가
 춘바람이 섯듯부변 이불안은 어이할고
 아히드른 무시썰고 종권식은 원망하늬
 연연묵은 쏏보심헌 농안의 쓰어니아
 이보면 조아주소 저보면 미우주소
 말방투이 엽픽씨고 고방안의 드러가서
 제초느락 갈여늬고 종조보리 후비늬여
 닌손으로 못하거던 길숨갑슬 어이아리
 흥가닥의 말노쥬고 흥필썸디 섬도쥬고
 다쓰조면 손슈세야 훗썸보고 더읍쥬며
 남의손만 전혀밋고 여러등을 덤흠손가
 어늬압히 낫철들고 반양반웃 타슬하여
 필목기늬 스서주소 못하여 입스이다
 아린마의 슈연군조 건닌마외 호인군조
 남과갓치 가조하늬 무얼입고 가조말고
 압집의가 치마빌고 뒗집의가 버선비이
 언난스람 지빈하고 쥬난스람 나칭닌다
 여공지스 못하거던 엄식중만 어이할고
 밥을하면 죽이되고 죽을썸면 밥이되여
 소린중의 국써리고 소랑중의 취믹우니
 흥조치마 돌너입고 조방머이 지비썸고
 강총강총 들어달늬 웅총망총 송노하늬
 김친물은 쏏다지고 술은어이 이젗노고
 굶지못 먹고늬니 칭역중이 절노늬다
 인역거정 그러늬마 남올될낭 그리마소
 부모으게 탄은얼골 칭긴디로 그저두소
 널죽갓탄 낫뵤되기 진믹썸은 무슴일고
 박촉갓튼 입수얼의 칭식피는 무슴닐고
 이마터럭 다썸분니 돌수박니 링송링송
 썸분눈썸 다시나니 썸썸썸썸 수식으로다
 버선가장 붓쓰러워 두죽볼니 썸거신니
 용흥가장 쏏긴죄로 거리우의 큰칼쓰고
 달귀신 드러오니 초학귀신 다라난다
 초당의 흥조잘씨 가장짜라 나오기난
 무슴닐노 나와던고 조고나니 우슴도다
 이웃분여 마조안조 귀이되고 소군소군
 흥난 공스소회 시모공스 가장흥을
 흥악히도 조아늬여 친정중 온다하면

송방의 열년가서 우람이야 눈물이야
존스설을 무숨일고 초당의 연감열고
가중의 필먹니여 편지을 고기죄고
공방글시 더되신이 안부도 후듯마듯
서런진정 쏘이로다
저긱달늑 이곳달늑 손식만식 씨노흐이
안진부모 어이알고 시가흥만 절노는다
스랑의 손오면 죽씨기난 무숨일고
친정손 온다후면 석쥬드러 디접하고
시가손 온다후면 그럭슈만 치우죽고
죽슈거난 무숨일고 지늑가난 돌파리와
씨늑가난 공중명도 손을쳐 불너드러
쌀로안훈 늦기명의 입도안훈 익존이복
멋모라고 닌여쥬며 반양반의 람만여겨
업서지면 원망만 전혀하고 된문으로 늑가더라
여람이면 돈미도리 복성도리 옥신각신 불여들러
야히쥬고 조히쥬이 박속갓탄 순무명과
은형갓튼 손의곡석 갈여니여 죽다마라
훗분오면 마이쥬마 아모일도 못후면서
연중타션 무숨일고 활손소라 빅틀곤쳐 물의곤쳐
곤치기도 지변후다 나무리기 지려후다
모시숨빅 마전할제 어이후여 식혀시며
말은셔답 진셔답 엇지후여 돌쳤노고
이부면 모을손 그이기난 더욱분타
잘압튼 아이후고 허미입난 타설후늑
먹이든 안이후고 양식업다 걱정소리 심화난다
훈달육장 장날마다 소금소리 듯기실타
이억쳐지 저르커든 트시난 무숨일고
이웃연과 말을후면 으심후여 쏘노고
방미오면 썩을니여 말도후변 아이후늑
절현거동 불작시면 싸흫썰날 잇살손가
남조의 용훈마암 그럿타고 어이할고
후제노 그리마소 순으로 타이르면
가중 훈말싹히 열말 고시르고
늑죽으만 스악소리 어진안턱 어더스라
언언이 손막으니 말후다가 어이업서
낫철덥고 도라서며 어와 저런턱은
방망이로 웅적이 처초후면 조흫시고

[현대역]

나부가

어와 부녀(婦女)들아 니 내 말씀 들어보소
부녀의 받들 행실 어느 일이 편할손가
사구(事舅)도 내 일이요 봉제사(奉祭祀)도 내 일되리
빈객(賓客)도 내 일이요 어미 복(服)1)도 내 일이라
◆◆당적 내 일이요 음식 칙계 내 일이라
어찌 시◆ 부녀들은 할 일을 못 하거던
절기(節氣) 지나 마지어다2) 아무 철도 모르면서
걱정소리 시끄럽다
주야(晝夜)에 혼자 들어 군동제만 한단말가
가로독 쓸어내어 전역으로 맞춰내고
쌀 단지 쏟아내어 맨자지미3) 맞춰내고
아이야 시끄럽다 네 아버지 들으실라
조미(粗米)들의 이배듬
저 밥이라 누룽지에 물직하게 채워내니
물배로다 맛보노라 먼저 먹고 대고모와
내종(乃終)4) 먹고 고리 끌러 많이 먹고 먹으면 솔에 있다
입치레만 추진(推進)하고 침선방적(針線紡績) 아니 하되
아기 선다 유세(遊說)하고 차열과를 내주었네
아해(兒孩) 운다 핑계하고 어줍자니 누워 자네
지낸 해 잔는 가락 오리고 끄르렀네
어제 밤에 축인 헛가래 섞어난다
담배대만 비기시고 춘하무량(春夏無量) 지내다가
찬바람이 선듯 불면 이 불안은 어이할꼬
아해(兒孩)들은 무지 떨고 종 권식(眷食)5)은 원망하네
연연(年年) 묵은 꽃버선은 농안에 끌어내어
이 쓰면 잡아주소 저 쓰면 메꿔주소
발강통이6) 옆에 끼고 고방(庫房)7) 안에 들어가서
제차 나락 가려내고 종자 보리 훑어내어
내손으로 못 하거든 길삼 값을 어이 아리
한 가닥의 말로 주고 한 필 짚데 섬도 주고
다 짜자면 손수 세어 흘긔 보고 더욱 주며
남의 손만 전혀 믿고 여러 등을 덮을쏜가
어느 앞에 낫을 들고 반 양반옷 탓을 하여
필목(疋木)8)이나 사서 주오 옷하여 입으리라
아래 마을 수연군자(粹然君子) 건넌 마을 호인군자(好仁君子)

남과 같이 가자 하니 무얼 입고 가잔말고9)
 앞집에 가 치마 빌고 뒷집에 가 버선 빌어
 얻는 사람 지빈(至貧)하고 주는 사람 내색낸다
 여공지사(女功之事)10) 못 하거든 음식장만 어이할꼬
 밥을 하면 죽이 되고 죽을 쑤면 밥이 되어
 고린 장에 국 끓이고 고린 장에 채매우니
 행주치마 들러 입고 자방머리 깊이 꺾고
 광총광총 들어 달라 웅총망총 상 놓으니
 김칫물은 쏟아지고 술은 어이 잊었는고
 굶지 못 먹고 나니 생역정(逆情)11)이 절로 난다
 이제까진 그럴지만 남 올 때는 그리 마소
 부모에게 받은 얼굴 생긴대로 그저 두소
 널찍12) 같은 낮바대기13) 진매똥은 무삼일고14)
 박죽15) 같은 입술이 생시피는 무삼일고
 이마 터럭 다 뺏으니 돌수박이 맨송맨송
 뺏은 눈썹 다시 나니 수세수세 수세16)로다
 벼는 가장(家長) 부끄러워 두 쪽 불이 붉었으니
 용(庸)한17) 가장(家長) 속인 죄로 거리 위에 큰칼 쓰고
 달귀신 들어오니 초학(初瘡)18) 귀신 달아난다
 초당(草堂)에 혼자 잘 때 가장(家長) 따라 나오기는
 무슨 일로 나왔던고 자고나니 우습도다
 이웃 부녀(婦女) 마주 앉아 귀에 대고 소곤소곤
 많은 공사소회(供辭所懷)19) 시모공사(媿母供辭) 가장(家長) 흥을
 흉악(凶惡)히도 잡아내어 친정(親庭) 중 온다 하면
 상방(上房)에 얼른 가서 울음이야 눈물이야
 잔사설20)을 무삼일고 초당(草堂)에 연갑(硯匣) 열고
 가장(家長)의 필묵(筆墨) 내어 편지를 고개 죄고
 공방 글씨 더디 쓰니 안부도 한 듯 만 듯
 서런21) 진정(陳情) 뿐이로다
 저것 달라 이것 달라 끈새만새 써놓으니
 앳은 부모(父母) 어이 알고 시가(媿家) 흥만 절로 하다
 사랑(舍廊)에 손22) 오면 죽 쑤기는 무슨일고
 친정(親庭) 손 온다 하면 석주 들어 대접하고
 시가(媿家) 손 온다 하면 그릇 수만 채우자고
 죽 쑤기는 무슨 일고 지나가는 돌팔이23)와
 떠나가는 공중명도 손을 쳐 불러들여
 딸도 안한 녹기명의 입도 안한 의장의복(衣幟衣服)24)
 멋모르고 내어주며 반 양반에 남만 여겨

없어지면 원망만 전혀 하고 뒷문으로 나가더라
여름이면 동미도리 복성도리 옥신각신 불러들여
야회 주고 자회 주니 박속같은 순무명과
은행 같은 손의 곡식 가려내어 작다마라
훗분²⁵) 오면 많이 주마 아무 일도 못하면서
연장 닦은 무슨 일고 활끈²⁶) 꼬랴 베틀 고쳐 물래 고쳐
고치기도 지번(至煩)하다²⁷) 나무래기 지려(砥礪)하다²⁸)
모시 삼베 마전²⁹)할 제 어이 하여 색했으며
마른 서답³⁰) 진 서답 어찌하여 돌쳤는고
입으면 모를손³¹) 그 이기(利己)는 더욱 분타³²)
잘압든³³) 아이하고 흠(欠)이 있는 닦을 하네
먹이던 아니하고 양식(糧食) 없다 걱정소리 심화(心火)난다
한 달 육장(六場)³⁴) 장날마다 소금(小鎗)³⁵) 소리 듣기 싫다
이녁 처지(處地) 저랄거든 뜻이는 무슨일고
이웃 년과 말을 하면 의심하여 뜯는고
박미(迫眉)³⁶)오면 성을 내어 말도 한 번 아니 하네
저런 거동(舉動) 불작시면 싸움 빨 날 있을쓴가
남자의 용(庸)한 마음 그럴다고 어이 할꼬
후제³⁷)는 그리 마소 순(順)으로 타이르면
가장(家長) 한말 끝에 열말 고시르고³⁸)
내 죽으면 사악(肆惡)소리 어진 안덕 얻었어라
언언(言言)이³⁹) 손막으니⁴⁰) 말하다가 어이없어
낮을 덩고 돌아서며 어와 저런 덕은
방망이로 웅적이 처치(處置)하면 좋을시고

[각주]

- 1) 어미 복(服) : 부모의 복상(服喪).
- 2) 마지어다 : 끝내다.
- 3) 맨자지미 : ‘쌀밥(멥쌀로 지은 밥)’의 방언.
- 4) 내중(乃終) : ‘나중’으로 다른 일을 먼저 한 뒤의 차례를 말한다.
- 5) 권식(眷食) : 식구.
- 6) 발강통이 : 벌거숭이
- 7) 고방(庫房) : 살림살이 넣어 둔 방.
- 8) 필목(疋木) : 필로 된 무명, 광목, 당목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9) 가잔말고 : 간단 말인가.
- 10) 여공지사(女功之事) : 길쌈을 일컫는 말로 ‘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모든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11) 생역정(逆情) : 까닭 없는 성화.
- 12) 널찍 : 널빤지.
- 13) 낮바대기 : ‘낮(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
- 14) 무삼일고 : 무슨 일인가.
- 15) 박죽 : 밥주걱.
- 16) 수세 : 수세미.
- 17) 용한(庸-) : 성질이 순하고 어리석은.
- 18) 초학(初瘡) : 처음으로 앓는 학질.
- 19) 공사(供辭) : 범인(犯人)이 자신(自身)의 범죄(犯罪) 사실(事實)을 진술(陳述)하는 말.
- 20) 잔사설(-辭說) : 쓸데없이 번거롭게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음. 또는 그 말.
- 21) 서런 : 서러운.
- 22) 손 : 손님.
- 23) 돌팔이 : 떠돌아다니며 지식이나 기술, 물건 따위를 팔며 사는 사람.
- 24) 의장의복(衣櫛衣服) : 옷장에 넣어 둔 의복.
- 25) 훗분 : 뒤에 오는 사람.
- 26) 활끈 : 무영활끈으로 목화를 타서 솜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활끈.
- 27) 지번(至煩)하다 : 매우 번거롭다.
- 28) 지려(砥礪)하다 : 숫돌 따위에 갈다.
- 29) 마전 : 생피륙을 삶거나 빨아 별에 바래는 일.
- 30) 서답 : 빨래.
- 31) 모를손 : 모를 것을.
- 32) 분타 : 분하다.
- 33) 잘압든 : 자랐던.
- 34) 육장 : 한 달에 여섯 번을 서는 장.
- 35) 소금(小金) : 팽과리.
- 36) 박미(迫眉) : 아주 가까이 닥침.
- 37) 후제(後-) : 뒷날의 어느 때.

38) 고시르고 : 내키지 아니하거나 불안하여 생각을 다잡지 못하고 마음을 썩이고.

39) 언언(言言)이 : 말마다.

40) 손막으니 : 손으로 말을 못하게 막으니.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